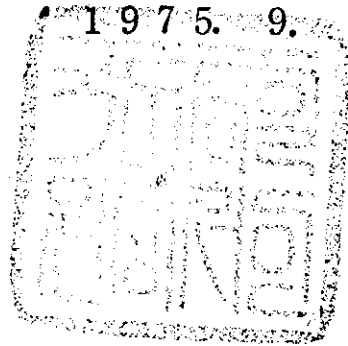


政治史的 立場에서 본 大韓民國의  
國家的 正統性

— 南北韓 比較考察 —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9.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崔 聖 俊

研 究 員 趙 基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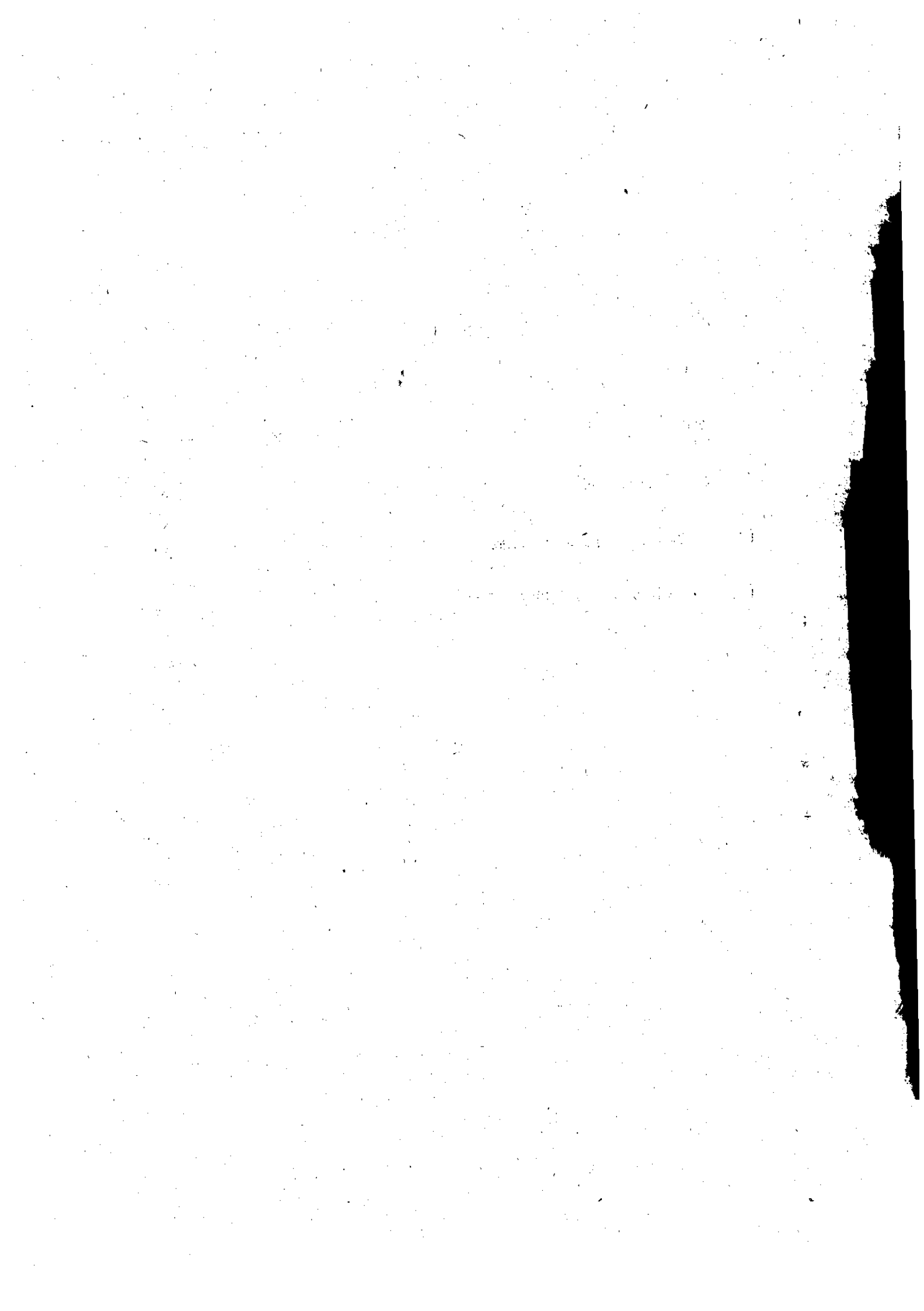
研 究 員 王 任 東

研 究 員 孫 陽 洙



## 目 次

1. 問題의 提起 .....	3
2. 正統性의 概念 .....	6
3. 韓國政治史의 主体로서 의 正統性 .....	9
(1) 北韓陣營의 共產主義運動 .....	10
(2) 南韓陣營의 抗日獨立運動 .....	27
(3) 8.15以後의 南北關係에서 의 正統性의 追求 .....	38
4. 맺는 말 .....	53



## 1. 問題의 提起

韓民族의 近代史는 列強勢力들의 干涉 또는 侵略으로 인한 民族 主体性의 互解, 民族의 分断에서 온 文化的 異質化, 그리고 南北韓의 国土의 分断支配에서 야기되기 國家의 正統性의 紛爭等 多 많은 歷史的 問題들을 提起해 놓고 이제 이것들이 民族의 要請에 따라 肯定的으로 解決되도록 發展하고 있다. 自意的이건 他意的이건 이러한 民族國家의 分断은 民族文化發展에 至大한 沮害要因이 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沮害要因을 除去함에 있어서도 無數한 民族的 利益의 損失과 犧牲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沮害要因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것은 國家의 正統性의 問題가 아닐 수 없다. 政治史的 立場에서 보아 大韓帝國의 傳統과 源泉國家의 正統性을 계승한 것은 大韓民國임에 의심의 餘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主義의 唯物史觀에 따라 正統性도 合法性도 否認하는 北傀集團이 革命主義를 主張하면서 同時에 그들 스스로의 正統性마저 고집하며 歪曲함으로써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基本姿勢는 正統性의 否認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革命이 있을 뿐이다. 革命은 一切의 既存秩序를 否

定하며 새로운 秩序体系를 確立하여 새로운 關係, 새로운 企圖를 樹立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물며 마르크스主義에 따라 暴力革命을 手段으로 하고 있는 北傀集團은 어떠한 社會勢力 或은 어떠한 政治勢力이 우리 民族의 國家的 正統性을 계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本質적으로 矛盾된 位置에 서게되며 또 그 正統性을 否定하는 基本姿勢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集團은 그들 스스로가 韓半島에 있어서의 正統적인 源泉國家의 單獨代表權을 갖는 것이라고 內外에 歪曲宣傳함으로써 平和와 國際秩序를 破壞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1910年 韓日合併條約에 의하여 大韓帝國의 主權이 消滅하였기 때문에 法理論上으로는 源泉國家로서의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南北韓의 어느 쪽도 繼承할 수 없다고 할런지 모르나 특히 1919年의 3·1 獨立運動을 契機로 해서 各種의 抗日獨立鬪爭期間에 있어서 大韓帝國의 傳統과 正統性을 繼承한 民族陣營의 上海臨時政府가 主動이 되어 祖國光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第2次大戰中の 카이로宣言 또는 포츠담宣言에서도 上海臨時亡命政府가 源泉國家의 法的 或은 政治的 正統性을 繼承할 것을 強大國들에 의하여 諒解된 바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第2條에 있어서도 韓國基本條約 第2條에 있어서도 이 事實을 法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大韓民國



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유구한 歷史的 傳統과 國家的 正統性的 相  
統者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的 事實은 論争 以前의 既定事實이기는 하나 이에대  
한 理論的 定立과 政治史的 實證의 体系的 確立이 必要하며 또  
이러한 作業은 國土統一에 對備하여 우리 國民의 精神的 支柱가  
될 것이며 이것을 國內外的으로 理解시킴으로써 平和的 統一에 이  
바지 하도록 誘導함에 있어서 매우 有益할 것이기 때문에 本研究  
課題가 提起된 것이다. 이러한 必要성과 當爲性에 따라 本研究에  
서는 南北韓의 國家的 正統性的 有無를 部分的이며 單片的이기는  
하나마 주로 大韓帝國沒落以後의 韓國 政治史를 背景으로하여 南北韓  
을 比較考察하면서 大韓民國의 國家的 正統性的 理論的 根拠를 摸  
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正統성의 概念

正統성에 관한 概念이 古代 中世에 있어서는 道德的 宗教的 意味에서 取扱되어 왔으나 近代에 이르러서는 支配者와 被支配者간의 權力關係에서 同意 合法性 正当性 合理性을 土臺로한 支配權威의 要素로서 規定되고 있다.

近代 유럽政治史에서 正統主義 (Le legitimisme)란 用語가 처음 抬頭된 것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Napoleon沒落後의 Wien會議 (1814.9 ~ 1815.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Napoleon戰爭에 의해서 攪亂된 유럽의 地域을 再建하기 위한 原則으로서 同會議가 採択한 것이다. 革命의 原則 및 征服의 權利 (Droit de conquete)에 대해서 正統의 權利 (La legitimité)를 尊重하며 프랑스革命 및 그에따른 征服에 의해서 그의 地位를 상실한 諸國의 主權者 (君主)에게 旧領土를 回復시킬 것을 主張한 이 正統主義는 프랑스의 Bourbon王朝와 諸地方에 Ancien Regime를 復活시켰으며 그 結果 近代民主主義의 基本原理인 自由主義와 國民主義를 抑壓하는 바가 되었다.

그러나 1830年 7月革命에 이르기까지 正統主義는 諸君主의 旧領土에 대한 支配權을 正当化 或은 合法化시켰으며, 그 根柢로서는

宗教的 世襲的 隨性的 支配權威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宗教界에 있어서나 經濟學界에 있어서나 또 社會主義學派間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最近에는 우리 韓半島를 비롯한 分斷國家에 있어서까지 正統性的 根柢는 激烈한 論爭의 對象이 된 것이다.

이와같이 正統性的 概念은 여러 側面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政治學의 立場에서 考察하자면 무엇보다도 支配權力의 正當性에서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支配는 強制를 隨伴하게 되는 것이다. 強制는 本來 人間의 憎惡의 屬性이며 服從은 不平不滿속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더우기 政治權力이 그의 最後의 手段으로서 갖는 物理的 強制力이야 말로 憎惡와 反撥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支配者가 이러한 物理的 強制力을 独占하는 것이 當然한 것이라고 생각되기에는 여기에 무엇인가 妥當한 根柢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被支配者가 이와같이 積極的으로나 或은 消極的으로 政治權力의 支配를 承認하고 許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回答이 바로 權力의 正統性이 되는 것이다. 最近에는 正統性的 根柢로서 同意正當性 合法性 合理性을 內容으로 하는 國民意思의 支配 즉 代議制的 民主主義가 有力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이러한 權力의 正當性的 根柢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며 現實의 權力容認은 이러한 諸類型의 結合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고 보아야

2122

할 것이다.

本研究에 주어진 範圍는 南北韓의 分斷國家가 各各 支配하는 國家의 統治權力이 어떠한 根拠에서 어느 쪽이 正當한 것인가를 再 確認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統治權力이 大韓帝國의 源泉國家로부터 어떻게 繼承되고 어떻게 變形되고 또 어떻게 行使되고 있는지를 近代 韓國政治史를 背景으로 하여 南北韓 各勢力의 抗日獨立鬪爭의 經緯와 그후의 權力關係를 比較考察하면서 代議制的 民主主義를 採 択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統治權力이 真正한 國民意思의 支配로서 正統性의 充分한 根拠가 되며 韓半島의 唯一한 正統性과 代表權을 独占할 수 있는 國家임을 規定하는 데 있는 것이다.

### 3. 韓國政治史의 主体로서의 正統性

韓半島에 마르크스主義의 唯物思想이 上陸하여 北傀의 暴力革命集團을 集結시키기까지의 韓國政治史는 階級鬭爭이 아닌 超階級の 民族抗爭으로서 明確한 民族史的 正統性을 維持하여 온 것이 그의 特色이라 하겠다. 그것은 過去에 우리先祖가 對漢 對唐 對女真 對蒙古 倭亂 胡亂 斥邪運動 抗日運動等 對外鬭爭을 통하여 超階級的 民族國家를 建設하여온 歷史的 過程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8.15 解放과 더불어 自主獨立國家로 承認된 우리 大韓民國은 過去 日帝의 植民統治의 犧牲이 되어 國權이 消滅되었든 大韓帝國의 國家的 正統性을 繼承한 唯一한 合法國家임에도 不拘하고 北傀를 비롯한 一部 共產國家 或은 所謂 非同盟國家들은 이를 否認하려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明確한 歷史的 根柢에 立脚하여 이를 論證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南北韓을 比較考察하면서 政治史的 立場에서 究明하자면 그것은 北韓의 共產勢力과 南韓의 民族陣營中 어느쪽이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韓民族의 政治史的 主体勢力이 되어 抗日獨立鬭爭에서 國家的 正統性을 回復하는 데 보다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또 그 뒤에도

國家權力이 어떻게 變形되고 行使되고 있느냐에 따라 南北韓의 國家的 正統性的 繼承與否가 決定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제 大韓帝國의 消滅로부터 8·15 解放까지 國家의 統治權力的 回復過程에 있어서 南北韓側 陣營의 抗日獨立鬪爭의 性格과 方法을 比較考察하면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北韓陣營의 共產主義運動

#### ① 朝鮮共產主義運動의 起源

大體로 우리나라에서는 共產主義運動이 1910年代末부터 始作은 되었으나 아직 階級意識은 없었으며 民族意識만이 支配的이 있다. 그러나 1917年의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은 世界共產主義運動을 자극하였으며 레닌의 革命理論에 따라 아시아後進國에서는 民族解放을 共產主義運動을 통해서 遂行하여야 한다는 煽動에 자극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激動期에 있어서도 日帝의 彈壓下에 놓여 있던 國內에서는 볼셰비키革命의 消息도 모르고 또 共產主義理論 自体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을 中國領과 露領에 移住한 韓國人 또는 日本留學生들을 통해서 社會主義理論 및 그의 運動이

導入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共產主義運動은 海外에서 始作하여 國內로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17年 露領 沿海州로 亡命 或은 移住한 韓人들은 大韓民國議會를 設立하여 獨立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는데 것이 蘇聯의 볼셰비키의 後援下에 共產主義運動을 통한 獨立鬪爭의 形態로 變化된 것이다.

먼저 蘇聯의 10月革命後 시베리아에서의 韓人의 左翼運動狀況을 보면 1918年 6月26日 하바로스크에서 組織된 李東輝, 朴鎮淳 등의 韓人社會黨과 1918年 4月22日 일크스크( Irkutsk )에서 金哲勳, 吳夏默 등이 組織한 일크스크 共產黨 韓人支部 ( 러시아 共產黨에 隸屬 ) 의 두派에서 始作된 것이다.

여기서 初期의 韓人社會主義運動의 性格은 오직 民族獨立精神의 具現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바로스크 韓人 社會黨의 李東輝는 當時 大韓帝國의 軍人( 現階級制로 少領 ) 이었으나 1907年 日帝의 強壓에 의한 朝鮮軍의 解放으로 인하여 露領으로 亡命하여 獨立運動에 從事하게 되었다. 當時 러시아 政府는 共產主義者 이건 아니건 反日主義 韓人이라면 모두 환영하게 됨에 따라 李東輝도 漸次 볼셰비키 政府에 包摂되어 沿海州에 8個 韓人社會黨支部를 設置하고 獨立鬪爭을 展開하였는 것이다.

1918年 8月30日 李東輝를 비롯한 그의 同志一行이 브라더보  
스토크를 떠나 上海의 大韓民國臨時政府에 入閣함으로써 그의 理念  
이 社會主義國家의 建設이 아니라 韓民族의 獨立과 統治權力の 回  
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上海派 高麗共産黨이  
라 부르게 되었으나 實은 民族陣營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크스크에서는 1919年 9月5日 前  
記 일크스크共産黨 韓人支部를 中心으로 全露韓人共産黨을 組織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일크스크派 高麗共産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蘇聯國籍의 韓人으로 構成되었으며 恆時 蘇聯共産黨의  
支配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 ② 韓人의 海外共産主義運動의 分裂

海外에서의 韓人들의 共産主義運動에 있어서 分裂의 要因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이나 아니면 民族主義的 獨立運動이나의 路線  
의 相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에 上海派는 民族  
獨立을 위하여 自主적으로 努力하였으며, 한편 일크스크派는 蘇聯共  
産黨에 예속되어 蘇聯의 東方政策에 따라 祖國光復을 期待한다는  
데서 路線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韓人共産主義者들은 蘇聯共産黨 地方事務局의 指導



下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 그들로 부터 資金의 支援없이는 活動이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兩派는 서로 党的 正統性確立에 분투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上海派 李東輝는 第一次 및 第二次 코민테른에 代表를 派遣하는 등하여 党勢가 優勢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일크스크派는 上海派 高麗共産党的 正統性を 否認하고 그 自身이 正統이라하여 이름을 일크스크派 高麗共産党이라 稱하게 되었다.

더우기 이 兩派의 싸움을 惡化시킨 것은 蘇聯의 內政과 極東政 策의 變動이었다. 當時의 蘇聯政府는 아직 國內政局이 安定되지 못한 情勢下에서 그들의 後援을 받고 있는 韓人共産主義者들이 시베리아에 出兵한 日本軍과 直接 衝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內政에 있어서 (赤衛軍과 白衛軍의 싸움에서 韓人을 白衛軍에 對抗시키기 위해서) 모든 露領韓人을 武装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韓人으로 하여금 그들의 祖国獨立보다 소베트 러시아의 守護를 優先의 任務로 하도록 韓人共産主義者들을 利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7年以來 브라크웨시켄스크에 있는 大韓國民議會가 祖国光復을 위한 韓人政府로서 構成되었던 것을 當時의 蘇聯 極東共和國政府에 隸屬시켜 놓고 傀儡로 利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大韓國民議會는 漸次 蘇聯國籍을 가진 所謂 일크스크派

의 韓人들에 의해서 支配되었으며, 한편 러시아共産黨 遠東部附設 韓人部를 指導하고 있던 上海派 李東輝도 韓人武裝隊를 蘇聯에 派遣하여 赤軍과 合勢하게 하는가 하면 특히 레닌과 親密한 關係에 있기도 해서 蘇聯当局에 의해서 무시당할 만한 存在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共産黨은 그들의 對内外政策路線에 利用하기 위해서 만때는 韓人共産主義者들의 派閥싸움을 助長시켰던 蘇聯政府当局이 이제 이들의 統合을 위해서 數次 調整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오다가 드디어 日本軍의 시베리아 撤兵交渉에 支障이 있다고 하여 韓人武裝部隊의 解体를 強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措置에 따라 韓人部隊들은 모든 派閥을 統合하여 일크르크派 大韓國民議회의 主導下에 臨時高麗革命軍政議會를 組織하는 바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蘇聯의 極東共和國領內를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이 蘇聯共産黨은 祖國의 獨立을 위해서 싸워야 할 韓人共産主義者들을 利用하여 赤軍에게 必要할 때에는 이들을 武裝시키기로 하고 또 시베리아에서의 日本軍의 撤収交渉을 위해서는 이들을 追放까지 하였다. 이것은 蘇聯의 國家的 利益을 위한 것이기도

하러니와 또 이措置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가 와탄된 데서 온 것이기도 하다.

③ 일크스크·上海 兩派高麗共産党的 統合試圖와 그 失敗

러시아共産党은 10月革命直後에는 유럽資本主義社會에서의 革命을 期待하여 아시아地域의 共産党的 活動을 소홀히 하여 왔으나 1920年代 유럽革命運動이 쇠퇴하는 傾向이 나타나게 되자 一國社會主義論으로 守勢를 취하는 한편 아시아의 共産党을 支援하여 反帝民族解放鬪爭을 사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따라 러시아共産党은 韓人共産主義者들이 모두 國內에 돌아가서 反日獨立鬪爭을 하도록 兩派高麗共産党을 統合시킬려고 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을 러시아共産党的 路線에 따르도록 코민테른을 통하여 操從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國籍을 가진 少數의 일크스크系 韓人共産主義者들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共産主義의 使命보다 反日獨立鬪爭의 民族主義的 意識이 강하였기 때문에 結局 兩派의 統合은 容易하지 아니 하였는 것이다.

즉 1922年 1月 모스크바에서 極東人民代表大會가 열렸으며, 同大會는 케닌의 共産主義革命路線에 따라 反植民地 民族解放運動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團結할 것을 呼訴하였으나 同大會에 派遣된 國內派 呂運亨을 비롯한 韓人代表들은 여기서도 亦是 派閥間的 對立을 피할 수 없었으며, 또 1922年 11月 워르흐네우진스크에서 上海派 일크스크派 國內派等 모든 共產主義者들의 統合을 위한 聯合大會가 열렸으나 亦是 上海·일크스크 兩派의 對立으로 成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하여 兩派의 統合이 失敗되자 코민테른은 兩派高麗共產黨의 解体를 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韓人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祖国 獨立運動을 할 수도 없었고 다만 蘇聯의 東方政策에 利用되다가 1922年 12月 解体되고 만 것이다.

#### ④ 朝鮮共產黨의 創立工作

이와같이 露領과 中國領에서의 韓人共產主義運動은 蘇聯의 東方政策에 利用되었을 뿐 實際로는 3·1運動과 같은 國內에서의 拳族的 抗日鬪爭에는 아무런 影響을 주지 못한 채 黨權鬪爭으로 끝나고말았다. 初期에는 上海臨時政府에 李東輝派 共產主義者들이 協力하는 척 하였으나 여기서도 亦是 그들의 指導權爭奪이 如意치 않게 되자 1922年頃에는 李東輝의 上海派는 臨政에서 손을 떼고 그들의 근거지마저 上海에서 露領으로 옮기고 말았다.

한편 蘇聯共産黨은 国内外에 있는 모든 韓人共産主義組織을 하나의 統一体로 結合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에 高麗局을 新設하여 일크스크系의 鄭在達을 國內에 派遣하였다. 그러나 國內에는 이미 北風會 서울靑年會등의 左翼運動의 組織體間에 派閥싸움이 있는데다가 上海派의 李東輝는 國內共産黨組織에 있어서도 일크스크派의 韓明瑞에게 主導權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暗鬪만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韓人의 統一的인 共産黨組織에 失敗하자 코민테른은 高麗局을 廢止하고 새로히 組織局을 新設하게 되었다. 이 組織局은 1924年 3月 브라지보스토크에서 韓人共産主義者會議를 召集하고 여기서 露領 韓人共産主義者들의 主導下에 國內에 朝鮮共産黨을 創設할 것을 決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決議에도 不拘하고 如前한 派閥싸움으로 國內工作에서 失敗하게 되자 이제 組織局마저 解体가 되었으나 그래도 이것은 1925年 4月의 朝鮮共産黨 創立에 크게 役割을 한 셈이 된다.

##### ⑤ 朝鮮共産黨의 創黨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共産黨은 유럽共産主義革命에 失敗하자 그의 鬪爭方向을 아시아地域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中國에

있어서는 1921年 7月에 日本에서는 1922年 7 7月에 印度는 1924年, 그리고 朝鮮에서는 1925年 4月에 各各 共産党的 創党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중 朝鮮共産主義의 活動은 日帝의 彈压과 国内에 大衆組織으로서의 基盤이 없었기 때문에 蘇聯共産党에서 訓練과 指令을 받은 金在鳳 및 그의 追從者들에 의한 工作이라 할지라도 그리 容易하지는 아니 하였다. 當時의 朝鮮国内에는 共産主義의 主体가 될 勞動階級이 없었고 共産主義思想은 知識人の 独占物이 되었다. 따라서 共産主義思想과 運動, 그리고 理念과 實際에는 乖離가 있었다.

그러나 民族主義的인 抗日獨立運動은 學族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은 이 틈을 타서 大衆속에 파고 들게된 것이다.

그러나 初期에 있어서의 勞動共濟會를 비롯한 各種의 團體들은 抗日獨立運動의 目的을 가진 民族陣營의 指導下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共産主義者들의 浸透는 容易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民族陣營의 獨立運動은 오직 独自の인 組織과 힘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漸次 蘇聯共産党과 그의 操從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組織 및 資金의 支援을 받고 있는 海外韓人共産主義者들의 国内浸透工作을 沮止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순수한 民族陣營의 抗日運動團體로서 組織되었  
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이 이 團體들에 浸透함에 따라 그 性格이  
漸次 變化하게 되었는 것이다. 例를 들면 1920年 12月 民族  
主義者 張德秀등의 主導下에 國內 113個의 青年組織을 統合하여  
朝鮮青年聯合會를 結成하였다. 그의 서울支部인 서울青年會가 民族  
主義者들의 指導下에 있었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은 이에 浸透하여  
이것을 赤化시키기 위해서 1922年 1月 無產者同志會(後에, 無產  
者同盟으로 改稱)를 組織하여 이에 對峙시켰다. 그 結果 同서울  
青年會와 朝鮮青年聯合會는 李英 金思國등 共產主義者들의 손에 들  
어 가게 되고 이것이 후에 朝鮮共產黨의 核心的 基盤이 되었으며,  
따라서 서울青年會는 赤雷團 社會主義青年同盟 女子青年同盟등의 團  
體를 組織하여 朝鮮共產黨 서울分派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朝鮮共產黨의 한 分派를 이루게 된 北星會(후에 北風會로  
改稱)는 在日留學生들에 의해서 組織된 것인데 이들은 在日本 朝  
鮮勞動總同盟을 그 산하에 두고 서울에 浸透하여 新興青年會를 結  
成하여 抗日獨立鬪爭보다도 資本主義에 挑戰하는 것을 任務로 하였  
다.

서울青年會系 및 北風會系 등의 國內共產主義者들의 分派를 규합하

여 朝鮮共産党 創党에 決定的 役割을 하게 한 것은 朝鮮事務局이었다. 朝鮮事務局은 1923年 5月 일크쓰크系の 金在鳳의 国内浸透와 그의 主導下에 組織되었으며 그의 中核組織으로서 新思想研究會라는 合法團體를 結成하는 한편 新興青年同盟 漢陽青年同盟 朝鮮勞農同盟등을 그 산하에 두고 大衆組織에 들어간 것이다.

그 후 新思想研究會는 曹奉岩이 指導하게 되었으며 그의 各稱도 마르크스의 誕生日을 記念하기 위해서 火曜會라고 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크쓰크系の 火曜會派가 中心이 되어 그에 親近한 日本留學生系の 北風會, 그리고 上海系の 서울派등이 基盤이 되어 朝鮮共産党的 創党을 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共産党은 火曜會의 指導者 金在鳳에 의해서 1925年 4月 17日~18日 秘密裡에 創党되었다. 初代黨首에는 金在鳳이 選出됨으로써 實權은 일크쓰크系の 火曜會가 掌握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過程을 거쳐서 創党을 보게된 朝鮮共産党은 蘇聯共産黨과 그의 操從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承認과 指示를 받아야 했고 또 치타(Chita)에 있는 일크쓰크派로부터 資金調達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크쓰크系の 人物이 黨權을 掌握하게 된 것도 當然하



다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朝鮮共産党은 民族國家의 獨立 이라는가 統治權力の 回復보다는 蘇聯共産党 또는 國際共産主義運動 의 東方政策을 分擔하는 役割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創黨以來 아직 大衆의 基盤組織이 미약한 朝鮮共産黨員들 은 新義州에서 일어난 「朝鮮共産黨萬才」事件과 亦是 1925年 11 月の 新義州 日本人구타事件등으로 日警에 의한 金在鳳一派의 檢挙 로 인하여 그가 이끌던 朝鮮共産黨의 指導體制는 1925年 12月 13日을 기해서 終止符를 찍게 된 것이다.

#### ⑥ 第二次朝鮮共産黨

新義州事件으로 金在鳳이 체포되고 많은 共産主義者들이 海外로 逃避하게 되면서 1925年 12月 黨權을 姜達永에게 引繼하였다. 이것을 世稱 第二次朝鮮共産黨이라 하며 前者를 金在鳳黨이라 한데 대해서 이것을 姜達永黨이라고도 부른다.

姜永達은 黨再建을 위하여 7人에 의한 中央執行委員會를 構成하여 1926年 2月中旬 第1回 中央執行委員會를 秘密裡에 召集한 以來 同年 4月1日에 이르기까지 11회의 會議를 召集하였다 한다.

이 期間에 있어서 黨運營을 위한 重要한 議決事項은 大體로 北風會等 諸團體의 統合工作과 國內외의 連絡網組織의 強化, 그리고

朝鮮獨立과 共產政治의 同一時期를 選定하는 工作들이었다 한다.

이와같이 朝鮮共産黨員들은 朝鮮이 獨立된 후에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그대로 繼承하려는 것이 아니라 蘇聯의 極東政策의 一環으로 朝鮮獨立과 더불어 韓半島를 赤化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目的下에서 姜達永黨은 金在鳳黨의 失敗를 經驗으로 하여 이번에는 國內組織으로서 야체이카(細胞組織 또는 基本團體) 및 푸락차(非常設機關의 非黨員으로 하여금 黨의 方針에 따르도록 大衆을 유도하는 組織體) 등의 秘密地下組織을 黨의 基礎으로 하게 되었다.

이것을 各分野別로 보면 學生部 勞農部 言論機關部 女性部 思想部 등의 分野로 区分되며, 서울에 9個의 야체이카를 두고 이것을 다시 二個區로 나누었다.

第1區에는 朝鮮日報社 漢陽青年聯盟 火曜會第一 火曜會第二에 두었으며, 第二區에는 印刷聯工組合 學生 時代日報 勞農總同盟 遊動隊內에 두었다. 이와같이 姜達永黨의 組織事業은 푸락차工作으

로 成功하였으며, 社會各階各層에 浸透하여 民族獨立鬪爭을 共產主義 革命을 통해서 遂行하며 同時에 韓半島를 獨立과 더불어 共產化하 기 위한 大衆組織에 힘 썼는 것이다.

한편 姜達永黨은 海外組織에도 크게 활약하였다. 海外組織으로는 上海 沿海州 滿洲 日本等地에 連絡部를 두고 있었다. 이들 連絡部는 1925年 11月 新義州事件때 海外로 逃避한 金燦 등 第一次 朝鮮共產黨의 中央委員들이 指導하고 있었으며 同時에 그들은 同中央委員資格을 계속 行使할 것을 主張하게 됨으로써 國內의 中央機關과 多少의 마찰은 있었으나 이들을 통한 國際的 支援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海外組織中에서도 上海連絡部가 가장 強力하고 広範한 權限과 業務를 委任받고 있었다. 여기서는 金燦 金円治 曹奉岩 趙東祐 등 亡命幹部들이 上海에 거점을 確保하고 주로 코민테른과 國內黨과의 連絡을 취하는 役割을 하여 왔다.

또 上海連絡部는 滿洲部를 設置하고 指導까지 하였다. 上海部の 金燦은 曹奉岩 崔元沅을 滿洲에 派遣하여 1926年 4月~5月 滿洲總局을 設置하고 曹奉岩을 責任秘書로 任命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燦의 上海部는 国内共産党에 대하여 幹部의 人選 問題에 까지 干涉하였는가 하면 1926年 6月10日 純宗의 国葬日 에 萬才騷動의 民衆運動을 일으킬 것을 指示한 바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6·10 萬才事件의 性格을 多角度에서 考察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民族史의 한 페이지에서 外面當하고 있는 傾向이 있으나 이 事件은 어디까지나 反日感情을 가진 民族的 울분의 發露에서 暴發된 것이며 共産主義者들이 이 民衆의 心理를 利用하여 이 에 便乘하게 됨으로써 그의 性格에 오점을 남기게 된 데 不過한 것이다.

如何間 이 6·10 萬才事件을 契機로 이에 關聯된 民族陣營의 人士들은 勿論 共産主義者들 까지도 日警은 모두 檢挙하게 됨으로써 1926年 7月을 기하여 姜達永黨의 活動은 事實上 끝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左翼運動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후 北風會의 過激派인 M.L派가 主動이 되어 東京에 있는 月曜會派, 그리고 國內에 있는 서울青年會派와 合勢하여 第三次 朝鮮共産黨을 再建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高麗共産青年會를 再組織하였고 1927年 5月 同共産黨幹部 高光洙 金綴洙 二名이 모스크바에 가서 第三인터내

쇼날과 國際共產青年會의 承認을 받고 歸國하여 各道와 日本 上海 滿洲等地에도 支部를 設置하려는 차 黨員間의 反目으로 인해서 1928年 2月 責任秘書 金俊淵을 비롯하여 崔益幹 溫樂中等 36名 이 日警에게 檢拳됨으로써 亦是 第三次 共産黨도 끝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殘餘黨幹部 安光泉 韓偉健等의 계속적인 地下黨活動으로 同 1928年 4月에 第四次 朝鮮共産黨을 組織하고 責任秘書 및 幹部들을 改選하였으며 正義感과 反日感情이 투철한 青年 學生層에 침투하여 同盟休學 또는 示威行進等을 操從하는 等 反日民族感情을 利用해서 共産主義의 革命戰略을 展開하였으나 同年7月 亦是 日警에 의한 黨幹部들의 逮捕로 失敗하고 朝鮮共産黨은 그 以後에는 再建이 不能하게 되었고 그의 活動도 中止되고 만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朝鮮共産主義者들은 第一, 二, 三, 四次의 朝鮮共産黨을 組織하여 大衆의 反日民族感情을 利用하여 그들의 革命戰略을 遂行하는 동안 오직 社會主義團體만이 眞正한 愛國主義者들이요 또 民族을 救出하는 唯一한 政治團體라 自負하면서 民族主義陣營의 諸團體는 反動分子이며 民族의 反逆者로 規定짓고 그들에 대하여 테러行爲 또는 謀略等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은 暴力行爲를 行使하였

는 가 하면 極端的으로는 右翼勢力의 抹殺과 自派勢力만의 擴大運動을 감행하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社會主義理念만이 抗日鬪爭의 基本인 것처럼 내세웠으며, 이에따라 朝鮮의 獨立과 더불어 共產政治가 施政되어야 한다고 策勵하였으나 그 結果는 國內외의 共產主義者들간의 치열한 黨權鬪爭으로 그들 스스로를 破滅의 길로 引導하게 되었으며 또 한편에 있어서는 民族을 分裂하여 抗日鬪爭에 있어서의 拳族的인 獨立運動을 沮害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8·15 以前의 朝鮮共產主義者들의 발자취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始終一貫 蘇聯共產黨과 그의 操從下에 있는 코민테른의 指示를 받고 世界共產主義革命과 蘇聯의 東方政策의 遂行을 위한 任務에 忠實하였을 뿐 日帝에게 빼앗긴 主權과 國家民族을 되찾아 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것마저 階級없는 社會, 所有權없는 社會를 建設하겠다는 共產主義者들끼리 主導權과 黨權다툼으로 스스로를 自滅시켰으며, 民族史의 傳統과 文化등 正統性을 回復하려는 民族陣營마저 分裂시켜 日帝의 植民地統治를 延長 或은 有利하게 해 줌으로써 反民族的 치욕의 歷史를 記錄하여 놓은 것이다.

## (2) 南韓陣營의 抗日獨立運動

### ① 大韓帝國의 消滅

大韓帝國末期의 아시아情勢는 韓民族을 祭物로 하여놓고 一旦 거센 파도는 지나간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期間에 있어서 周邊強國들의 干涉과 抑壓을 벗어나고 자란 韓民族의 울분은 東學亂을 비롯해서 수 많은 排外自主思想의 義拳로서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日本의 成長과 大陸進出政策은 드디어 韓半島에 上陸하여 韓民族의 象徵인 王家를 逐出하고 학살 함으로써 民族史의 正統性을 斷切 시키는 데서 始作 하였으며, 主權을 박탈하기 위해서 1904年 2月 23日에는 드디어 一方的인 韓日議定書라는 것을 約定하여 韓國을 그들의 保護下에 두려는 野慾을 나타내게 되었다.

1904年 日露戰爭에 勝利한 日本은 그의 帝國主義的 野慾을 더욱 露骨化하여 이번에는 1905年 11月에 日本의 樞密院長 伊藤博文을 特派大使로 任命派遣하여 所謂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할 것을 強壓 함으로써 이제 大韓帝國은 國家로서의 對外的 獨立權을 日本에게 奪取 當하고 그의 保護下에 들어간 것이다.

日本帝國主義者들의 이러한 侵略行爲에 대해서 우리民族의 울분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憤起한 人士中에는 宿儒碩學이 많았으며, 그 중 閔宗植은 忠南에서 義兵을 일으켜 同志를 糾合하여 洪川城을 占奪하였고, 崔益鉉 林炳瓚等은 全羅北道에서 결기하였다. 그 밖에도 慶尙道에서는 申珩石이 江原道에서는 柳麟錫 등이 各各 義兵을 일으켜 한 때는 그 勢力과 意氣가 冲天하는 듯 하였으나 日本軍의 殘酷한 彈圧으로 그 때 마다 鎮壓되고 만 것이다. 한편 이러한 民族的 悲運에 통탄하여 결기한 人士中에는 敎育과 啓蒙을 통해서 民族意識의 覺醒 憤起를 꾀하기 위해서 各種의 政治團體 즉 共進會 憲法研究會 大韓自彊會 大韓協會 人民代表議會등을 組織하여 排日興韓運動을 일으켰고, 또 그 밖에도 文化 敎育을 위한 學術團體를 結成하여 民族的 自覺을 促求 하였다.

한편 日帝의 만행을 國際社會에 폭로하고 억울한 韓民族의 運命을 호소하기 위해서 1907年 6月에는 海牙密使事件이 일어났다. 즉 光武帝의 密詔와 信任狀을 極秘裡에 받은 李相高 李鶴 및 李瑋鐘等 三人은 海牙에서 열린 第二回國際平和會議에 出席하여 韓民族의 억울함과 日帝의 強盜的 侵略을 폭로 할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割腹 自殺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民族의 排日抵抗運動이 擴大되고 激烈해 질수록 日帝의 彈壓과 侵略根性は 더욱 늘어났으며, 海牙密使事件을 트집잡아 高宗皇帝를 退位시키고 純宗을 即位시켰는가 하면 同 1907 月 8 月 1 日에는 大韓帝國軍隊를 解散시켰다. 이 때에 解散당한 軍隊는 到處에서 武裝결기하여 抗日鬪爭을 展開하였는데 이들 義兵은 劣勢한 人員과 武器를 들고 強力한 日本軍에 對抗해서 5年間이나 싸웠다.

또 이와같이 韓民族의 運命이 絶望속에 빠져 茫然自失하고 있는 중 1909年 10 月 26 日 韓日併呑의 元兇 伊藤博文이 하르빈 駅頭에서 安重根義士의 銃彈에 쓰러지고, 親日派의 巨頭인 売國奴 李完用은 同年 12 月 22 日 李在明義士의 칼을 맞아 重傷을 입었다.

이와같은 強力한 民族的 抵抗임에도 不拘하고 日本帝國主義者들은 親日走狗의 徒黨인 一進會를 背後에서 사측하여 1909年 4 月에 李完用一黨에게 靑史에 오점을 남긴 韓日合邦請願書라는 것을 發表케 하고 이것을 純宗과 朝鮮統監 및 日本總理에게 提出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日本帝國主義者들에 의해서 꾸며진 侵略文書인 韓日合邦條約文書는 最終的으로 御前會議을 거쳐 1910年 8 月 29 日에 締結된 것으로 發表 되었으며 이것으로써 李氏朝鮮은 建國以來 27代 519年の 王朝의 幕을 내리고 大韓帝國은 完全히 消滅되고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統治를 받게 되었은 것이다.

## ② 日帝下에서의 抗日民族獨立鬪爭

日帝의 韓日合邦과 그들의 殘忍한 植民地武斷統治는 드디어 1919年 3月 1日의 拳族的인 抗日獨立運動으로 폭발 되었다.

이 事件에서 日帝에 의한 被殺者는 무려 7,500餘名이며 負傷者數는 15,900餘名 그리고 投獄者가 46,900餘名에 달했다.

이 時期를 前後해서 수 많은 愛國之士들이 海外로 亡命하여 祖國光復을 위한 獨立運動에 投身하게 되었다.

그 중 代表的인 것은 李承晩, 金九, 安昌浩, 李東寧등이 中心이 된 上海臨時政府라 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組織的인 抗日獨立運動의 必要性에 의한 國民의 熱望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上海프랑스租界에 세워진 이 臨時政府는 當時 國內외의 抗日鬪士들의 總本山이었고, 또 이것은 大韓帝國의 主權의 回復이라는 民族的使命을 띄고 있었은 것이다.

1919年 4月 臨時憲章이 宣布되어 李東寧이 議長으로 李承晩, 安昌浩가 各各 國務總理와 內務總長이 되었다. 同年 9月에는 臨時憲法이 制定되어 李承晩이 大統領, 李東寧, 金九가 國務總理와 內務總長에 選出되었으며, 1926년에는 職制改編으로 金九, 金奎植이

各各 主席 副主席이 되었다.

이때 宣布된 臨時政府의 憲法에는 ㉠ 韓國은 共和國이다.

㉡ 議會制度의 採択 ㉢ 宗教와 良心의 自由 ㉣ 言論出版 集會의 自由 ㉤ 貴族의 特權廢止 ㉥ 宗教와 政治의 分離 ㉦ 常備軍의 解体와 國民等의 創設 ㉧ 司法權의 獨立等의 要旨를 規定하고 있었으며, 이 臨時政府는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繼承한 海外亡命政府이며 또 이 憲法은 當時 國民의 意思와 世界的인 潮流에 따라 制定된 것으로서 韓國이 獨立된 후에 그대로 施行할 것을 豫定한 民主憲法의 性格을 가진 것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朝鮮共產主義運動의 始發은 1910年代에서 였으나 그것은 주로 滿州 또는 沿海州地方으로 移住한 韓人들이 소련의 볼셰비키共産黨과 코민테른에 의해서 操從 되었으며 大韓獨立과는 別途로 그들의 東方政策에 利用당한 傀儡集團의 性格을 갖고 있었으나 大韓民國上海臨時政府는 처음부터 民族의 獨立을 위하여 鬪爭할 것을 目標로 하였으며 그 運營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自主的이고 民主的이었고 獨立後에는 韓民族의 歷史 傳統 文化등을 그대로 繼承할 正統性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臨時政府의 活動에 있어서도 그들은 獨立軍을 支援하였고 抗日運動의 統一的인 指揮를 하였으며 聯通制의 組織網을 통해서 各

各地域의 抗日鬪爭을 指導 하였다. 또 光復軍을 組織하여  
1942年에는 對獨 및 對日宣戰布告를 한 후 聯合軍의 一員으로  
東南亞에서 直接 日本軍과 戰爭을 遂行하는 등 實際로 韓國民의  
象徴적인 政府役割을 한 것이다.

臨政이 後援하고 指揮한 海外武裝獨立軍은 滿州에서 義兵出身과  
結合하여 獨立軍과 軍政府를 組織하였으며 그 중에서 北間島의  
國民會와 臨政傘下의 北路軍政署 西路軍政署 및 新興武官學校 등이  
가장 큰 抗日團體로써 役割을 하였다. 그들의 獨立鬪爭中 鳳梧洞  
戰鬪는 1920年 國民會所屬의 獨立軍이 濛洲 渾春縣의 鳳梧洞에서  
日軍의 大隊兵力을 全滅시킨 것이며 靑山里戰鬪는 北路軍政署獨立軍  
이 吉林省의 靑山里에서 日軍의 聯隊兵力을 4日間の 激戰 끝에  
全滅시킨 大戰鬪였다. 이 戰鬪에서는 金佐鎭 李青天 李範爽將軍 등  
이 큰 戰功을 세운 것이다.

그 밖에도 海外獨立團體의 組織的 活動은 活潑 하였던 것이다.  
1925年에는 參議府 正義府 新民府 등 3團體가 統合되었고 1927  
년에는 다시 이 3團體가 軍民會議로 統合은 되었으나 日.露의  
策動으로 큰 機能을 發揮하지는 못 하였다. 1919年 11月에  
滿洲에서 組織된 金元鳳의 戰烈團은 日本人의 要人暗殺과 民心교란

등을 目的으로 한 것으로 1926년에 羅錫壽에 의한 東洋拓殖会社  
爆彈投擲事件, 金祉燮의 東京二重橋爆破事件등을 指令 하였다.

1929年 戰烈團의 解散後 金九는 愛國團을 組織하였다. 그 團員인  
李奉昌이 1932年에 日本天皇을 저격 하였으나 失敗 하였고 尹奉吉  
은 上海 虹口公園에서 白川義則이하 日本將校를 殺傷하였다. 그의  
에 安昌浩는 美國에서 興士團을 組織하여 在美僑胞의 啓蒙과 抗日  
獨立運動을 指導하였든 것이다.

한편 民族의 抗日運動은 海外에서 만의 鬪爭은 아니었다. 그에  
못지 않게 國內에서는 直接 日帝의 監視와 彈壓을 받아 가면서  
各種의 地下團體 또는 合法團體들을 組織하여 抗爭하였든 것이다.  
그 중 代表的인 것은 前述한 3.1運動과 6.10萬歲運動 및  
光州學生運動 그리고 그밖에 많은 抗日義舉를 들 수 있는 것이다.

3.1運動은 民族的인 抗日獨立運動이었다 함은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朝鮮共產主義者들은 四分五裂되어  
團結된 힘을 發揮할 수도 없었거니와 民族의 獨立鬪爭보다도 소련  
의 東方政策에 忠誠했고 코민테른의 國際共產主義運動에 便乘하여  
民族의 獨立은 副次的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國內  
에서 일어난 3.1運動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行使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關心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3.1獨立運動은 純粹한 超階級的 民族運動이며 日帝의 暴惡한 植民地武斷統治를 排斥하고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回復하고자 한 拳族的 抗日鬪爭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26年 6月 10日의 6.10萬歲事件은 若干 그 性質을 달리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見解를 달리하는 감도 없지 않다.

6.10萬歲事件은 3.1運動과 마찬가지로 韓民族의 抗日運動에 있어 屈指의 事件임에는 틀림 없다. 이 事件을 말하여 「民族抗爭史上 두번째로 폭발한 6.10萬歲運動」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젊은 学徒들이 奸惡한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에 對抗하여 두번째로 民族의 獨立運動을 일으킨 6.10萬歲運動」이라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6.10萬歲는 共產主義者들이 많이 關与한 拳事였기 때문에 紀念할 만한 意義조차 없다」고 하여 忌避하는 傾向이 있는 가 하면, 이에 대해서 共產側에서는 「그 事件은 右翼民族主義者들에 의해서 謀議된 拳事이기 때문에 紀念할만한 價值조차 없다」고 外面 당하게 되어 結局은 歷史의 흐름 속에서 冷待와 忘却이 되어가는 傾向이 없지 않은 것이다.

如何時 이 事件은 左右翼을 不問하고 當時의 狀況속에서는

韓國民族으로서는 더 以上 참을 수 없는 對日憎惡感과 反抗心에서  
폭발된 事件이 있음은 틀림 없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의 이때  
오르기를 超越한 民族抗爭이라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事件은 當然히 民族陣營에서 主導權을 잡고 많은 群衆과 學生  
들이 參與하여 國家 民族의 正統性을 찾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共產主義者들은 3.1運動은 勿論이러니와 6.10萬  
歲事件에 있어서도, 그리고 1929年 11月 3日의 光州學生運動에  
있어서도 實際에 있어서는 아무런 役割을 하지 못 하였으며 오히  
려 抗日鬪爭에 熱中하는 民族陣營의 團結된 힘을 分裂 시키거나  
그들 스스로의 黨權爭奪로 인한 破壞를 自招하는 등 하여 反民族  
的 行動으로 獨立鬪爭을 妨害하였든 것이다.

日帝의 彈壓과 共產主義者들의 分裂工作에도 不拘하고 國內에  
있어서의 抗日團體들의 活動은 활발 하였을 것이다.

1927년에는 李商在 安在鴻 趙炳玉등이 民族陣營을 中心으로 左右  
合作團體로서 新幹會를 創立한 것이다. 이 新幹會의 創立経緯는  
當時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批判이 國內外的으로 高潮되어 가고  
있는 데다가 共產陣營이건 民族陣營이건 抗日團體에 대한 日警의

彈圧이 漸次 加重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民族單一組織체를 形成할 必要性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1926年 左翼系에서는 朝鮮物産獎勵會와 서울靑年會系를 합쳐서 朝鮮民興會를 組織中에 있었고, 또 民族陣營에서는 社會主義者 言論人 宗教人등을 모아 新幹會를 準備中에 있었는데 많은 千餘曲折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結局 左右兩者는 合意를 보아 1927年에 社會主義諸團體를 解体하고 드디어 新幹會라는 이름으로 統合되어 民族單一組織체를 創立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러하여 新幹會는 첫째 우리는 政治的 經濟的 覺醒을 促進한다. 둘째 우리는 團結을 鞏固히 한다. 셋째 우리는 機會主義者를 一切 認定치 아니 한다는 三大目標下에 오직 超階級的으로 民族의 獨立만을 위해서 活動할 것을 다짐 하였으나 元來가 異質分子들의 一時的인 集合體라 同床異夢의 꿈속에서 큰 일도 못한채 1931年 5월에 解散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新幹會는 日帝에 대해서 우선 光州學生運動으로 拘束된 學生들의 적방을 외쳤으며, 韓國人에 대한 착취기관의 철폐, 移民政策反對, 韓國人本位의 教育實施, 韓國語教育의 實施, 科學, 思想 研究의 自由등을 들고 나와 合法的인 혹은 非合法的인 鬪爭을 展開 하였든 것이다.



한편 新幹會의 婦女團體로서 金活蘭을 中心으로 謹友會가 組織되어 활약한 바도 있다. 同會 亦是 韓國女性運動에 社會主義者들이 浸透하여 分裂시켰던 것을 新幹會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民族陣營의 女性이 中心이 되어 주로 韓國女性의 團結과 地位向上이라는 目標을 내 세우고 左右翼의 合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民族獨立運動을 後援하여 오다가 新幹會의 運命과 같이 左右分裂로 解体되고 만 것이다.

그 밖에도 수 많은 抗日義學와 運動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日帝下에 있어서의 抗日獨立運動이란 日本을 共同의 敵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는 民族陣營이나 共產陣營이나 마찬가지로 엮기는 하나 그 窮極目的에 있어서는 同一하다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民族陣營에서는 日帝로부터 獨立하여 大韓帝國의 國家的 正統性을 回復하는 데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共產主義者들은 一切의 資本主義秩序를 否定하고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目的과 基本路線 및 性格이 相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抗日鬪爭過程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은 理論 組織力 訓練된 戰術 및 強力한 國際組織의 後援이 있었기 때문에 抗日鬪爭은 그들만이 한 것처럼 떠들고 偽裝하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그들의 策略 때문에 참된 民族獨立鬪爭을 沮害 하였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다음 8.15解放以後의 南北關係에서 더욱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3) 8.15以後의 南北關係에서의 正統性的 追求

1945年8月15日 日帝는 드디어 聯合國앞에 降伏하게 되었으며, 우리民族은 이순간부터 近半世紀間的 排外 排日運動의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民族解放이 우리民族의 抗日鬪爭의 結果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聯合國의 勝利가 決定的 要因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果然 聯合國은 獨立된 韓國의 國家 및 政府의 形態와 性格을 어떻게 規定하였던 가를 日帝의 敗戰을 前後한 몇가지 國際公約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第2次世界大戰이 聯合國側에 有利하게 展開되던 1943年11月27日에 美, 英, 中 三大國首腦들은 Cairo에서 會談하여 「韓國民의 奴隸狀態에 留意하여 適當한 節次를 밟아서 韓國을 自由와 獨立의 나라로 할 것」을 決意하였으며 이것을 Cairo 宣言으로 世界萬邦에 宣布하였다. 聯合國側은 여기서 分明히 韓國을 日本의 植民地로부터 解放하여 「自由와 獨立」을 시켜줄 것을 約束한 것이다.

여기서 自由라 함은 日帝의 束縛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意味하며, 獨立이라 함은 主權의 回復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回復이란 原狀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며 그 原狀은 大韓帝國의 正統性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聯合國은 이와같이 獨立後의 韓國의 正統性을 確認하였을 뿐 아니라 그뒤 1945年 7月 26日에는 美, 英, 蘇 三巨頭에 의한 Potsdam 宣言에서 韓國의 「自由와 獨立」을 再確認한 바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的인 公約과 宣言은 當然히 준수되어야 하며 어떠한 國家도 韓國의 自由와 獨立을 가로막는 行動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에 있어서의 日本의 戰爭能力은 이미 敗戰直前의 狀態에 들어 갔음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트루먼 大統領은 日本軍을 過大評價하고 소련의 恫계를 誤判하여 戰爭을 하루 속히 終結짓기 위해서는 1945年 7月까지 소련이 太平洋戰爭에 參戰해야 한다고 Potsdam 會談에서 懇懇하게 되자 스탈린은 이 機會를 노치지 아니하고 終戰 不過 1週日前인 8月 8日에 極東戰爭에 參戰할 것을 宣布하였다. 그리하여 8月 9日에는 그들의 宿願인 南進政策에 着手하여 8月 11日에는 北韓의 雄基와 羅津에, 同月 24日에는 平壤에 入城 하였으며 8月末까지는

北韓全域을 完全히 掌握한 것이다. 이리하여 소련 등은 聯合軍司令部 一般命令 第1号中 韓國에 관한 38度線 分割協定條項을 違反하여 38度線을 가로 막고 北韓地域을 共產基地化 하기 始作하였는 것이다.

이 무렵에 美軍(第24軍團)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까지 겨우 進出 하였으며, 1945年 9月 8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들은 仁川에 上陸하게 되었던 것이다. 美軍은 이와같이 소련軍이 北韓땅에 進駐한데 비하면 約1個月 늦게 南韓에 上陸한 셈이다.

이리하여 韓半島는 1945年 2月의 美 英 蘇等 三國에 의한 Yalta 協定에 따라 38度線 以北에는 소련軍이 以南에는 美軍이 各各 占領하게 되어 敗戰한 日本軍의 武装을 解除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같이 38度線은 美, 蘇 兩國이 軍事行動의 便宜上 設定한 一時的인 軍事行動 境界線 이었고 따라서 軍事的 目的의 終了와 더불어 消滅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38度線은 그 本來의 目的을 離脱하여 漸次 恒久的인 國境線으로 變質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當初의 Cairo 宣言이나 Potsdam 室言의 根本精神에 違背되는 処事이며 韓民族은 日本으로 부터의 解放과 同時에 다시금 美 蘇라는 強大國의 權力다툼속에 말려들게 되는 悲運의 歷史를

再演하게 된 것이다. 南北韓에는 各己 相異한 体制의 軍政을 實施하게 됨으로써 國土와 民族이 分斷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소련이 對日戰에 參加하고 戰勝國으로서 北韓地域을 占領하도록 許容한 美·英 등 自由國家들은 1920年代부터 활발하게 進行된 소련의 東方政策, 즉 아시아共産主義革命運動의 溫床을 提供해 줌으로써 스탈린의 計略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련이 對日參戰으로 北韓에 까지 進駐하게된 그 自体가 처음부터 韓半島 나아가서는 全 아시아地域의 共産化를 目標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1945年 12月 25日의 모스크바三相會議와 美 蘇共同委員會의 協議過程에서 더욱 分明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會議에서 美·英·蘇等 三國外相은 韓國民의 自治能力 또는 自活能力의 不足을 理由로 하여 5年間の 信託統治와 그 過程에 있어서의 韓國臨時政府의 樹立을 決議한 바 있는 것이다. 이 會議의 決定에 대해서 36年間の 日帝의 植民地統治에서 解放된 韓國民族으로서는 이 措置를 支持할 수 없었던 것은 當然한 民族感情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스크바三相會議의 信託統治案에 대한 反對運動은 學族的인 것으로 되었으며, 3.1運動以來 韓國人의 民衆運動史上

最大規模였던 것이다. 1946年 反託運動이 그의 極致에 달하였을 때 全 서울市는 撤市狀態였고 4,200餘名の 軍政庁中央官吏中 約 900名밖에 出勤하지 않았으며 서울市內의 8個警察署長도 總辭職하는 등 하여 國內는 一大混亂을 惹起하였던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로 처음에는 이에 呼應하여 反託運動에 나섰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소련의 사측을 받고 贊託運動으로 突變하여 또 한번 反民族的 行動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모스크바協定에 따라 美 蘇共同委員會를 開催하게 되며, 여기서 韓國臨時政府를 樹立하기 위한 節次를 相議하게 되었다.

1946年 3月에 第1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豫定대로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것은 美軍側의 A. Arnold 少將과 蘇聯軍側의 T. Stikov 中將을 首席으로 하여 10名の 委員으로 構成 되었다. 이 때 美 蘇는 會談벽두부터 意見이 對立되어 結局 會議는 停頓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韓國臨時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協議에 招請될 政黨과 團體의 性格에 관하여 蘇聯軍側은 모스크바三相協定을 支持하고 贊成하는 政黨이나 社會團體만을 招請할 것을 固執 하였다. 즉 最高 5年 間 우리民族이 四大國의 信託統治를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는 團體나 政黨만을 臨時政府樹立에 參加시킬 수 있는 集團으로 하려는

것이 소련側의 主張이었다. 當時 소련을 祖國으로 하고 그들의 指令에 따르는 集團은 左翼系의 政黨 및 社會團體 뿐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意圖는 처음부터 共產主義者들로서 韓國臨時政府를 構成하려고 하였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美軍側은 民主主義의 根本原理가 言論의 自由에 있고 意思決定의 自律性에 있음으로 韓國에 現存하는 모든 政黨과 社會團體는 當然히 協議에 招請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의 正統國家 및 政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韓國國民의 自由意思를 尊重하여야 한다는 美國의 主張으로서 韓國의 民主主意 發展을 위한 當然한 提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 蘇兩側의 意見의 對立으로 同委員會는 同年 5월에 無期休會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民族의 統一政府樹立에의 希望은 날로 높아 갔음으로 1年後인 1947年 5월에 平壤에서 第2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再開되기는 하였으나 亦是 第1次會談의 境遇와 같이 相互間의 意見對立으로 結局 同會談은 完全히 決裂되고 만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軍側은 東歐羅巴의 많은 그들의 占領地域과 마찬가지로 韓半島에도 그들의 傀儡集團인 所謂 人民民主主義制度를 樹立할 것을 目的으로 하였으나 韓半島와 東歐

와의 差異點은 第2次大戦中 東歐에서는 소련共産黨이 操從하는 反獨 나치스의 resistance가 存在하였기 때문에 解放과 더불어 그들은 곧 共産黨을 組織하여 社會主義革命段階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韓半島에는 그러한 強力한 統一된 共産主義組織體가 없었기 때문에 5年間の 信託統治期間에 이것을 組織하여 全韓國을 共産化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于先 占領地인 北韓地域만 이라도 共産基地로 構築하기 始作 하였든 것이다. 이에 同調한 北韓共産主義者들은 日帝下에서의 共産主義運動過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如前히 소련共産黨의 指令을 받고 소련의 東方政策에 利用되었으며 民族史의 正統性의 계승은 고사하고 反民族的인 行動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如何間 美 蘇兩側이 利害關係의 相反으로 同會談의 決裂을 보게 되자 美國은 더 以上 소련을 相對로 하여서는 韓國問題의 解決이 可望없음을 깨닫고 1947年9月의 第2次 UN總會에 韓國問題를 提議하게 되었다. 즉 美國의 提案은 UN에 韓國臨時委員團을 設置하여 그의 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韓國을 통한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韓國을 樹立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련은 極力 反對하려고 工作을 하였으나 美國側은 이를 一蹴하고 絶對多數의 贊成으로 可決을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國際聯合의 決議에 따라 1948年1月 韓國臨時委員團이  
來韓하여 南北韓을 통한 調査를 할려고 하였으나 소련의 指命을  
받은 北傀는 同委員團의 入北을 沮止하였으므로 그 調査가 不可能  
하게 되었다. 그 結果 同委員團은 自由로운 總選이 可能한 南韓  
地域만이라도 于先 總選을 實施하기로 決議하여 1948年5月10  
日 UN監視下의 總選이 實施되었다.

總選에서 198名의 制憲議員이 選出되었으며 5月20日에는  
同議會가 歷史的인 開院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制憲議會 議長에  
는 李承晚氏 副議長에는 申翼熙氏가 各各 選出되었으며 7月17日에  
憲法이 公布되고 1948年8月15日에 드디어 大韓民國政府가 誕生  
된 것이다. 그 후 大韓民國은 美國을 비롯한 世界여러나라의 承  
認을 받았고 그 해 12月에는 第3次 UN總會에서 韓半島의 唯一  
한 合法政府로 認定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結果는 日本에게  
主權을 빼앗긴 지 40餘年만에 우리民族의 政府가 다시 成立 하였음  
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民族國家의 正統性을 國際的으로  
認定받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大韓民國은 이제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大韓帝國  
 나아가서는 韓民族의 正統性을 繼承한 國家임에는 틀림 없음을  
우리의 政治史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는 여러차례 모처럼 주어진 統一의 機會를 拒逆하고 民族史의 正統性과는 本質을 달리하는 共產主義理論에 따라 이 땅에다 프롤레타리아階級國家를 세울 것을 構想하여 暴力 革命 또는 武力에 의한 統一을 試圖한 結果 同族相殘의 6.25悲劇을 남겨 놓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美 蘇가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勢力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의 南北韓의 国内実情을 살펴 보아도 共產主義者들의 不斷한 赤化工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北韓에서는 1945年 8月 17日 民族陣營의 曹晩植을 中心으로 平壤에 平南建國準備委員會가 組織되어 앞으로 中央政府의 樹立이 있기를 期待하면서 自治活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軍이 平壤에 入城하면서 이 平南建準을 解体시키고 共產陣營의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組織하였다. 이것은 소련軍政當局이 北韓地域의 經濟的 약탈을 하기 위한 組織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軍政當局은 Cairo 宣言이나 Potsdam 宣言에서 確認한 바 있는 「韓國의 自主獨立」을 무시하고 北韓을 分割統治하고 또 韓半島의 赤化를 위한 共產基地의 構築을 위해서 1945年 10月 28日에는 北朝鮮五道行政局을 正式으로 組織하였다. 勿論 이러한 措置는 1945年 12月 25日의 모스크바三相會議와 1946年 3月의 第1次 美 蘇共同委員會 및

1947年5月에서 10月까지의 第2次 美 蘇共同委員會가 열리기 전에 이미 計劃되었던 工作이었던 것이다.

1945年 10月 13日에는 朝鮮共産党 北朝鮮 分局을 創設하였으며, 이것이 다시 同年 12月 17日에는 北朝鮮共産党으로 改稱되고 金日成이 同党的 責任秘書가 된 것이다. 소련 軍政은 이와같이 北韓의 五道行政組織과 또 그것을 指導 監督하는 共産党 組織까지 完了해 놓고 同年 12月 25日에 모스크바三相會議를 召集하여 그들의 뜻을 貫徹시키기 위해서 韓國의 5年間 信託統治案을 固執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曹晩植을 中心으로한 北韓의 民族障營이 反託運動을 하게 되자 이 때부터 一切의 反對勢力을 숙청 追放 또는 학살 하면서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構築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1946年 9月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單獨으로 創設해 놓고 亦是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任命하였다. 따라서 同委員會는 所謂 20個政綱이라는 것을 發表하고 土地改革法令 選舉法令 勞動法令 男女平等權法令 重要產業國有化法令等を 만들어 놓고 共産主義手法으로 收奪하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1946年 8月에 朝鮮新民黨과 北朝鮮共産黨을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하였으며, 앞으로 北韓에 單獨政府를 樹立할 目的으로 1946年 11月 3日에는 地方行政機關인 道 市 郡人民委員會를 選舉하였으며

1947年2月에는 各道市郡人民委員들의 間接選舉의 形式으로 立法機關인 北朝鮮最高人民會議을 構成해 놓고, 여기에 다시 最高執行機關인 北朝鮮最高人民委員會를 組織하였으며 委員長에 金日成이 就任 됨으로써 1947年5月에서 10월까지 第2次 美蘇共同委員會가 平壤에서 열리기 전에 이미 政黨이나 執行機關등의 모든 權限을 金日成이 掌握하여 北韓을 共產主義革命基地로서 構築해 놓고 各種의 協商을 提案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8.15解放을 마지한 南韓에 있어서는 呂運亨을 中心으로 組織되었던 秘密結社인 朝鮮建國同盟이 解放과 더불어 表面에 나타나 建國準備委員會를 結成하고 混亂期の 治安을 確保하고 있었다. 이것은 當時 北韓에 있어서 民族障營의 曹晚植을 中心으로 組織되어 治安을 維持하였던 平南建國準備委員會와 같은 役割을 하였으나, 同委員會는 左翼的인 色彩가 농후하다고 하여 여기서 反共勢力이 分派하여 韓國民主黨을 組織하게 된 것이다.

韓國民主黨은 左翼系의 建國準備委員會에 對抗하기 위한 反共勢力으로 組織되기는 하였으나 元來 烏合之卒이 뭉인 集團이어서 大衆 앞에 내놓을 名分이 없는 政黨으로서 다만 美軍政當局과 親近한 關係에서 維持되어 왔다. 이 때 마치 歸國한 上海臨時政府의 主席 金九 副主席 金奎植 內務部長 申翼熙氏등을 奉戴하여 名分을

찾으려고 內定하고 있었으나 뒤늦게 美國에서 歸國한 李承晩博士가 이에 対応해져 別個의 組織으로 政府를 樹立하려고 하자 情勢의 不利함을 알아차린 韓國民主黨의 態度는 突變하여 李博士를 支持하고 合作하여 上海臨政派에 對抗하게 되었으니 結果적으로 볼 때 國內左翼系의 建準과 民族障營의 上海臨政派가 反共親美勢力인 韓民黨이 李承晩博士와 結合하여 大韓民國政府를 樹立하게 됨으로써 完全히 밀려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過程에 있어서의 南韓의 社會는 安定된 것은 아니었다. 朴憲永을 中心으로한 南勞黨系 左翼分子들의 소동과 무수한 政黨 社會團體들의 亂立은 政局을 混亂시켰으며, 北韓의 金日成體制의 統制된 社會와는 對照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實情에 맞지도 않는 歐美式 自由民主主義를 無批判적으로 받아들인 結果로 招來된 混亂이라는 非難도 없지는 않으나, 한편 우리民族史의 正統性을 繼承하기 위해서는 個人의 自由와 尊嚴性을 무시할 수 없다는 思想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指摘해야 할 것은 이러한 政局의 混亂을 틈타서 秩序를 破棄하고 顛覆시킬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暴力手段과 偽裝平和戰術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對峙가 時日을 끌게 되고 또 그 對立感情이 深化되어

가자 全民族은 날로 統一을 熱望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그의 接近方法을 摸索하게 되었다. 즉 李承晩中心의 獨立促成會(左右翼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의 統合體)와 金性洙의 韓民黨은 南韓만의 總選舉를 원하였으며 金九中心의 韓獨黨은 南北協商을 통한 統一을 主張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金九 金奎植等의 合作派는 1948年3月 26日 越北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과 南北協商을 하였으나 그들의 計略에 말려들게 되어 結局은 失敗하고 돌아 왔다. 여기에 參集한 人士는 南北韓을 합하여 무려 625名이라 하며, 이 때 決議된 事項은 「韓半島에서의 外國軍隊撤收 및 南北韓不戰의 確認」이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계속해서 南北平和協商을 提案하여 亦是 平壤에서 1950年6月7日 同會談을 再開하여 6.25前日까지 계속 하였다. 6.25南侵이야말로 그들의 南北平和協商論이 기만戰術이며 偽裝平和統一攻勢였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6.25南侵은 侵略行爲이며 民族史의 正統性을 破壞하는 만행이었다. 그것은 韓半島에다 異質的인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려는 흥계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韓民族의 歷史 文化 傳統 藝術 등의 모든 正統性을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마르크스主義의 唯物史觀에 따른 革命이었기 때문이다.

1953年7月27日 休戰이 成立되고 54年4月26日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제네바會談이 열렸다. 여기서 南韓側은 UN 韓國統一復興委員團의 監視下에 南北韓 土着人口에 比例한 總選舉를 實施할 것이며, UN軍은 韓國이 統一 獨立될 때까지 계속 韓國에 殘留할 것을 提案한 데 대해서, 北傀側은 모든 外國軍隊의 6個月 以內撤収와 中立國監視下의 南北總選舉를 主張하여 如前히 南韓의 軍事力의 空白을 利用하여 再南侵할 意圖를 보였으며 그 以後 잇달아 일어난 武力挑發이나 武裝間諜의 南派등은 休戰協定의 違反은 勿論 民族史의 正統性을 破壞하려는 挑發行爲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傀儡는 國際緊張緩和의 潮流에 따라 우리政府가 提案한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72年의 7.4南北共同聲明에 合意해 놓고 이 精神을 一方的으로 무시한 채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을 中止시킨 것도 그들의 統一方案이 平和的인 것이 아니라 如前히 暴力的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所謂 四大軍事路線의 貫徹이라는 데서 더욱 뒷바침 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表面上으로는 高麗聯邦制나 大民族會議나 하면서 偽裝平和攻勢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政府는 그들의 기만術策에 속지 않을뿐더러 더욱 積極的으로 모든 共產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하여 世界人類의 監視下에서 南北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73年度 6.23平和統一外交政策案을 發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諸般措置는 正統性을 계승한 大韓民國으로서 취해야 할 當然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이것으로써 北韓傀儡集團은 韓半島의 正統性의 繼承者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破壞者임을 世界萬邦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 4 . 맺 는 말

日帝植民地 統治下에서의 抗日運動에 있어서 北韓共產陣營은 共產主義運動을 한 것이고 南韓陣營의 民族主義者들은 民族獨立鬪爭을 하였다 함은 지금까지의 韓國政治史 혹은 政黨史가 밝혀주고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革命과 正統性이란 矛盾된 概念이며 오히려 既存秩序의 傳統文化 등의 正統性을 破壞하는 것이 共產主義者들의 目的으로 되어 있다.

더우기 日帝下에서의 朝鮮共產主義者들의 運動이란 처음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을 信奉해서가 아니라 露領 혹은 中國領의 韓人移住者 및 亡命政客들의 愛國心을 國際共產主義者들이 利用해서 이것을 世界共產化革命의 遂行에 動員시키는 데서 始作된 것이다.

그럼으로 朝鮮共產主義者들은 韓國의 民族獨立이나 立權의 回復보다도 소련 共產政權에 忠誠했으며 코민테른의 指令과 後援을 받고 世界共產主義革命을 위해서 活動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이 國內政治에 關与하고 抗日運動에 影響을 준 것은 레닌의 共產主義革命理論에 따라 反帝民族解放鬪爭이라는 旗幟아래 共產主義革命을 통해서 日帝를 물리치고 그 땅위에 共產主義制度를 確立 한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國家的 正統性을 回復하려는 데서 抗日運動을 한 것이 아니었음은 分명한 것이다.

특히 朝鮮共產主義者들이 하나의 目標 즉 世界共產主義革命이라는 것을 指向 하면서도 國內外로 四分五裂되어 黨權鬭爭만을 일삼아 왔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에게는 어떤 民族史的 正統性도 없고 自主性도 없이 오직 소련共產黨에 隸屬되어 利用 당하면서 自滅의 運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 많은 派閥싸움에서 異端者를 全部 숙청하고 남아있는 唯一한 生存者는 오늘의 北傀 金日成이라 할 것이다. 金日成은 原名 金成柱로 日帝時代에는 소련軍少佐로 服務하였으며 소련을 祖國으로 모시고 소련의 國防 및 東方政策 나아가서는 世界赤化政策을 위해서 追徒하는 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勿論이러니와 그가 支配하는 北韓 共產政權이 民族史的 主体로서의 正統性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金日成集團은 革命에 의해서 새로운 秩序를 確立하는 자가 正統性의 相統者로 된다고 理解하고 있기 때문에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破壞하려 하고 있으며, 때로는 民主主義와 平和를 내걸고 偽裝戰術로 接近하기도 한다. 소련의 시족을 받은 北傀는 모스크바三相會議나 美 蘇共同委員會가 열리기 전에 어미

北韓地域을 完全히 共產主義革命基地로 만들어 놓고 있었으며, 또 6.25 前夜까지 南北平和協商을 한다고 煙幕戰術을 썰는가 하면 7.4 南北共同聲明도 그들의 共產主義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利用하였고 大民族會議니 高麗聯邦制니 하는 등의 偽裝平和戰術은 모두 우리의 正統性의 破壞를 위한 手段으로 動員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統治權力的 構造的 側面에서 보아도 北傀의 權力構造는 正統性을 계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正統性이란 被支配者의 同意와 自律性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비록 大韓帝國이 君主國家였기는 하나 君主의 支配權力은 傳統과 慣習外에도 百姓들의 同意 또는 自發的 服從이 있었기 때문에 維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北韓共產主義體制는 個人의 經濟生活에서 부터 團體生活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共產黨에 의해서 統制되며 強制되고 있는 것이다. 個人의 尊嚴性이 無視되는 것은 勿論 個人의 自由는 처음부터 認定되지 않는 것이다. 金日成이 支配하는 共產黨이 最高命令機關이며 그 밑에 있는 各國家機關은 黨의 命令을 決定하고 執行하는 役割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서 個人의 同意 또는 自發的 服從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絶對的 服從만이 있을 뿐이다. 國民은 支配者의 自由로운 選擇을 할 수 없으며 오직 金日成을 絶對者로 偶像화하는 金日成唯一思想만을 信條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統治權力體制가 確立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刑罰과 物理的 強制力에 의해서만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正統性의 論理는 成立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大韓民國은 大韓帝國의 歷史 傳統 文化 藝術 言語 및 其他 모든 民族文化의 要素를 繼承한 데다가 國民의 同意에 의한 統治權力이 形成되고 있으며, 이 支配權力 밑에 國民이 自發的으로 또는 積極的으로 服從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國家의 正統性의 確立을 뜻하는 것이다. 이 境遇에 있어서의 正統性은 支配와 服從의 複合體에 의해서 維持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日成體制에 있어서와 같이 物理的 強制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意味에서 政治史的으로 보나 統治權力의 構造的 側面에서 보나 韓民族의 國家的 正統性은 오직 大韓民國과 우리 國民의 文化生活 속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